



제09호 / '14.7.4(금)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또 없다! 제시안 언제 나오나..



아무 진전없이 끝난 9차 교섭

3일(목) 9차 교섭은 멀리 충주 KDK에서 열렸다. KDK 분회는 전노협 시절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역사가 깊은 노동조합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KDK에서 지부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각 지회 교섭위원들이 멀리까지 달려왔지만 실망감만 안고 돌아갔다. 여전히 사측 제시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9차까지 진행됐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진짜 안을 만드는 노력은 하는건지

지역 사용자들은 지금 제대로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내부 이견이 크다는 이유와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다. 통상임금 관련한 내용을 지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들이 지금 통상임금 문제를 전국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노동자들 임금 떼어먹을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사용자들이 제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지역에서도 안을 낼 수 있다며 시간만 낭비하는 듯 하다. 지부는 다른 사업장의 통상임금 합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안을 고민하라고 요구했다.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일정을 잡고는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더 이상 직무유기는 하지말자

교섭 차수라 두 자리수가 되고 있다. 다음 주 교섭은 10차 교섭이다. 사측은 중앙교섭이 결렬되었으니 지부 교섭도 결렬되겠다고 생각하고 직무유기하면 안된다. 교섭위원으로서 마땅히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 성실히 제시안 만들고 교섭에 임하시라.

* 차기교섭은 7월 10일(목) 14시 코스모링크에서 열립니다.

9차 교섭 속기록

아직도 계속 어렵다..어렵다..

사 : KDK대표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과정 끝에 09년에 다시 시작해서 올해 7년차에 들어간다. 케이블, 전선 등 전자제품의 파워서플라이를 공급하고 있다. 09년 이전에 저희도 노사관계를 지부집단교섭으로 해왔다. 현재 각사의 조건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금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환율이 문제가 되고, 내수침체,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감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있다. 통상임금까지 어렵게 다가올 것 같다. 노사가 이렇게 만났으니 서로 100% 만족은 없겠지만, 먼저 회사가 살고 종업원도 살 수 있게 상생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큰 탈 없이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사측도 노력하겠다. 노측도 지금은 다른 때하고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각 회사에 현실성 있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원만한 타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 : KDK는 역사가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다. 노동조합도 전노협 시절부터 활동을 해온 노동조합으로 알고 있다. 지회 사무실에 과거 전노협 시절의 사진도 있더라. 올 때마다 30년의 노동운동의 전통이 느껴진다.

사 : 부연설명하면, 뿌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때 회사는 지금의 회사하고는 별개의 회사였다.

노 : 저희도 올해 원만히 되길 바란다. 중앙교섭은 이번 주 화요일에 결렬선언을 했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안을 낼 때까지 결렬하기로 했다. 지부는 아직 판단을 못했다. 오늘 제시안이 있는지?

사 : 중앙의 안에 대해서 지역별로 논의를 하는데 지부는 안을 마련 못했다. 대충지부의 의견을 중앙으로 올리면서 우리 제시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선도적으로 먼저 타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은 안을 못만

들었다. 중앙에서 결렬선언을 했더라도 사용자협의회는 안을 만들겠다는게 중앙의 입장이다. 대충지부 요구안도 중앙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오늘은 별도 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노 : 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일정을 잡고 있나?

사 : 6개 회사의 임금체계가 다르고, 통상임금도 해당되는 회사만 낼 것인지, 임금안도 통상임금 해결없이 어떻게 내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지부의 안을 마련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다. 물론 일치가 잘 안되고 있다. 상황들이 달라서 이견도 많다. 이번은 정말 어렵다. 중앙의 큰 줄기가 잡히면 저희도 지역에 맞는 의견을 첨부해서 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노 :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합의한 사업장이 20여개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게 된 데도 있고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은 경우도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보니 사업장마다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민이다. 중앙교섭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지, 전체 회원사의 동일한 안을 내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안을 논의해달라.

사 : 저희가 가진 자료는 3, 4군데 정도다. 중앙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지 고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하지 않나 한다. 그런 것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신 말씀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전국적으로 상황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중앙이 안된 상태에서 지역에서 먼저 하기는 쉽지 않다.

노 : 오늘은 제시안이 없다고 하니 여기서 마치자.